

지역 소식통

고창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360억원 지급

전북 고창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07명이 증가한 총 1만 1965명이며, 이 중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4018명,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7947명이다.

총 지급면적은 지난해보다 288ha 감소한 1만9207ha다. 총 지급금액은 360억원으로 지급 대상자가 늘었지만 지급면적과 지급액은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중복지급 방지와 강화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 조건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존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부직불이 하나로 합쳐진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0.1ha~0.5ha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생고을시장

'문화 야시장'으로 들쭉

108년의 역사를 지닌 정읍의 대표 시장 '생고을시장' 내 평화주차장에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정읍 생고을시장 문화공연 및 야시장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홍보와 고객 유입을 통해 침체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과 방문객 등에게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향토 음식 등의 다양한 먹거리와 수제공예품을 선보였다.

또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 마술 공연과 지역동아리 공연, 시민들의 노래자랑과 이벤트가 펼쳐졌다.

특히, 조연비와 연예진, 이진관, 유빈, 정주 등 초대 가수의 초청공연으로 늦은 가을밤 흥겨운 분위기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년 예산 7505억원 편성

고창군, 올해 본예산 대비 3.93%증가... 군의회 심의 요청

전북 고창군이 장기적인 코로나 시대에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면서 민선8기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7505억원을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93% 증액한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청년정책과 관광산업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볼거리막을켜기, 즐길거리 사업에도 예산이 더해졌다.

먼저 '고루잡사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위해 농림해양분야에 총 1780억원

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472억원) △ 고리포 및 상포면역 어촌뉴딜사업(69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확대 지원(25억원) 등이다.

중소항농기계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준비지원 농·축업 분야 26개 사업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편성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전기운반차지원사업과 마을드림방제사업 등 다수의 신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기망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친환경 ESG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투자기업 보조금 조성액 확대

(2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융자 확대지원(20억원) △기업운영자금 융자 확대 지원(7억원) 등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 호응이 큰 지역화폐를 중단없이 운영하기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700억원 발행을 위한 준비 94억원 최우선 편성도 눈길을 끌었다.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 관련 5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달빛노을 양고살채 조성사업(28억원) △산림미술관 건립사업(25억원) △문수산주변 관광자원화사업(10억원) 등이 중점 편성됐다.

고인물 유적의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과 50회를 맞는 모안성제의 지역연계 참다T실증사업에도 각각 17억원, 16억원이 편성돼 내년 가을축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대응

국회 방문 예정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 적극 협조 요청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3일 국회를 찾아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국회를 찾아 유동수·한병도·이호호·박정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변형 협조를 요청했다.

부안군은 주요 사업의 추가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안 심의 막판 2주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생태정원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등 총 5건의 신규사업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생태정원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은 탐사르습지로 지정된 세계적 인 갯벌해양생태지원인 출판만 갯벌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3일 국회를 찾아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생태공원을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체류형 갯벌해양생태치유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특화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 초등학교태권도연맹, 전국 태권도대회 유치 협약 체결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이 전국 유소년 태권도 발전과 정읍시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위해 맺었다.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은 23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최권열 한국초

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 대회 관련 주요 인사와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정읍에서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를 열게 된다.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의 어린이 태권도 선수와 대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4박 5일 로 예정된 대회 일정 동안 숙박업과

요식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읍 고유의 대회 명칭을 붙여 지역 홍보와 문화·역사·관광 자원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시는 국제·전국단위 태권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체육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스포츠 강소 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주요 재난에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업 강화에 나섰다.

겨울철 재난 대응 '준비태세 강화'

정읍시, 기관장 간담회... 선제적 상황관리·기관 간 협업 구축

정읍시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주요 재난에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업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겨울철 자연 재난(한파·대설)과 교통사고, 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의 선제적 관리와 기관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재용 부시장장을 비롯해 고경운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 기관별 재난 대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과거 정읍시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 상황 대응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협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통하고, 관련 기

관(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대설·한파에 대비한 도로 제설과 상습결빙구간 안전대책, 제설제 비축 및 배치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폭설로 인한 다중주돌 사고와 농업시설물 관리 등 자연 재난을 대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재난 안전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확립하고,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10·29 이태원 참사와 이강기후 등으로 재난 안전대책 수립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협,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성료

정읍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락현)는 지난 22일 아크로웨이타워에서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단체들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의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정읍시 소도의원,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정읍시장 상인회장, 지역 상가 번영회장,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주 노동법과 세무 상식에 대해 양성대 노무사와 이세규 법무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이 진행됐다.

또 우수소상공인에 대한 표창 시상식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미래 비전 공유, 유관기관 소개를 통해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